

# 예술지원사업 만족도가 예술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구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만 수\*  
이 윤 석\*\*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예술지원사업을 경험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지원사업의 만족도가 예술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예술활동의 특성이 예술지원사업과 삶의 만족도 간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고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예술지원사업 만족도는 예술인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술활동 특성 중에 예술활동으로 인한 연평균 수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첫째, 예술지원사업은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예술지원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은 지원사업의 신청과 절차, 담당자의 사업이해도와 전문성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예술지원사업의 폭넓은 예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의 확대와 예술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예술인 복지사업의 일환인 예술지원사업을 통한 예술인 삶의 만족은 시민 문화기본권의 신장, 문화국가의 발전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파생적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문화예술정책, 예술지원사업, 예술지원사업 만족도, 삶의 만족도

## I. 서론

오늘날 우리는 문화를 빼놓고서는 사회현상 등을 설명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할 만큼 생활 속의 모든 것이 문화로 연결된 환경 속에 살고 있다. 21세기를 문화가 행복이고 국력인 시대(김정수, 2002)라고 하듯 이제 문화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최근 들어 문화가 국가의 주요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문화예술포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문화예술분야 지원정

\* 제1저자

\*\* 교신저자

책은 매우 보편적인 정책(Baumol & Bowen, 1966)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정향(policy orientation)은 문화행정과 정책, 문화예술지원정책의 관심으로 이어졌으며, 정부예산에 반영되어왔다. 정부 수립 이후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 전체 예산에서 문화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박응격, 2000)이었으나, 1970년대 들어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장르별로 본격 지원되었다. 문화예술 부흥을 위해 국가가 직접 문화예술 창작을 선도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행·재정적으로 간접적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그 지원도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어왔다(김정수, 2016).

특히,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으로 삶의 패턴이 진화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예술의 상상력과 기술의 창의력은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의 시민적 욕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문화기본권의 신장 요구가 커지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공적 지원은 더욱 다양화되고 과감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예술인의 창작환경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술활동이 제한되면서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받은 예술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장우현·이지현, 2021).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효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실상 찾아보기 어려우며(김정수, 2008), 지원기관은 적극적인 예술진흥의 촉진자 역할보다는 예산의 분배자 역할에 머물고 있다(김진각, 2021). 특히 예술 현장에서는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금액과 기간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정경운, 2019), 심지어 신청과 정산 절차의 복잡성과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사례(김태모, 2019)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예술 현장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평가(최윤우, 2020)와 더불어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정책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정래·박지윤, 2017).

예술지원사업 만족도는 작품출품과 작품활동 시간의 증가 등 예술활동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점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역량 강화는 예술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곧 문화향수권 신장을 통한 국민행복, 국가발전의 선순환되는 문화예술정책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황동열·류희진,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정부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지원정책들에 주목하였다. 즉, 이러한 문화예술지원정책이 예술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상황을 고려하여 예술인 창작활동지원 사업이 예술인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문화예술지원정책이 예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문화기본권을 신장하고, 문화예술이 융성한 사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예술지원사업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지원정책의 전달체계와 지원방법, 지원 확대의 필요성의 측면에서의 연구(김태모, 2019; 남경호, 2018)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

체, 지역문화재단 등 예술지원 체계의 선상에 놓여있는 기관의 운영실태와 지원방식 등을 분석하거나(김진각, 2021)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유형을 분석하는 데 머물러 왔다(임훈, 2020). 즉 어떻게 하면 지원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에 주력해 온 것이다. 이처럼 예술지원체계와 관련된 단면적인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예술인의 만족도와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예술지원사업과 지원기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 II. 이론적 배경

### 1. 문화예술정책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은 문화라는 개념에 라틴어 '아르스(ars)'와 그리스어 '테크네(tekne)'에서 유래한 예술이 더해지면서 문화와 예술, 문화예술이 혼용되고 있다(김정훈 외, 2017).

이러한 문화예술을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역동적이고 다양하게 해석되는 문화의 개념과 무정의성과 확장성을 가진 예술의 개념 탓에 문화예술정책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문화예술정책'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과 국가와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예술정책은 정부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공문제의 해결과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제반 활동이나 행위(김민주, 2015)로 정의할 수 있다.

문화예술정책은 나라마다, 정권에 따라서도 그 개념과 범위가 다르게 정의되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의 개념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문화 관련 기구가 조직되고, 공적자금이 문화예술 부문에 지원되면서부터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공정책으로서 문화예술정책을 실시하게 된 근거는 문화에 대한 기본권, 즉 시민들의 문화권에 대한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문화권은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1960년 말에 들어서면서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1968년 '인권으로서의 문화권'을 주제로 한 전문가 회의에서 개념 구축이 제안되었다. 문화권의 개념이 사회문화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모든 사회경제적 현상은 문화적 현상이라는 불가분의 복합체로 보는 경향으로 전환됨으로써 문화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김여수, 1988), 정부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을 문화예술정책(임학순, 2003)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문화예술정책은 먼저 일반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점차 확대되면서 정책적 수요가 발생하였고,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사회적 권리의 하나로 인식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문화 향수의 기회를 평등하게 누리는 문화기본권의 확산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고, 문화 복지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문화예술은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제로서 역할을 하

며, 시민들에게 연대 의식과 만족감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천으로써 문화 향유의 폭이 확대되고, 문화의 질과 수준의 향상은 물론,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정책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 2. 예술지원사업의 이해

### 1) 예술지원사업의 개념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은 문화예술이 가진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활용한 공적 개입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일회성과 노동집약성, 수요의 비탄력적 특성으로 일부 흥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운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김정훈 외, 2017). 여기에 문화예술이 가진 공공재적 성격으로 국가는 물론, 기업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다(김건탁, 2009).

예술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학술적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분류체계에 따라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권리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자립 지원 등 4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강석태·김선영,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로서의 시장실패, 예술가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다양한 사회적 편익 등의 요인을 근거로 예술의 진흥과 보호, 육성을 위해 기울이는 정부의 체계적인 활동을 예술지원사업으로 정의한다.

### 2) 예술지원사업의 추진체계

우리나라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정부 수립 후 정권 최초의 문화적 관심이었던 예술원 설립(1952)과 문화인 등록령(1953), 그리고 저작권법 제정(1957) 등의 문화예술의 기초적 구조가 마련되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정권을 달리하면서 많은 보완과 변화를 거치면서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정책은 자리를 잡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시작하여, 문화예술 분야 관련 개별법령들의 기본이 되는 상위법으로서 문화정책의 이념과 원칙을 법제화한 문화기본법이 2013년도에 제정되면서 문화예술 지원 관련 법적 체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sup>1)</sup>

이러한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의 창달, 전통문화의 보존·전승·발전과 문화관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 정책과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업무

1) 문화예술 지원 관련 법은 문화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예술인복지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영상물진흥기본법과 같은 기본법, 그리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등 다수의 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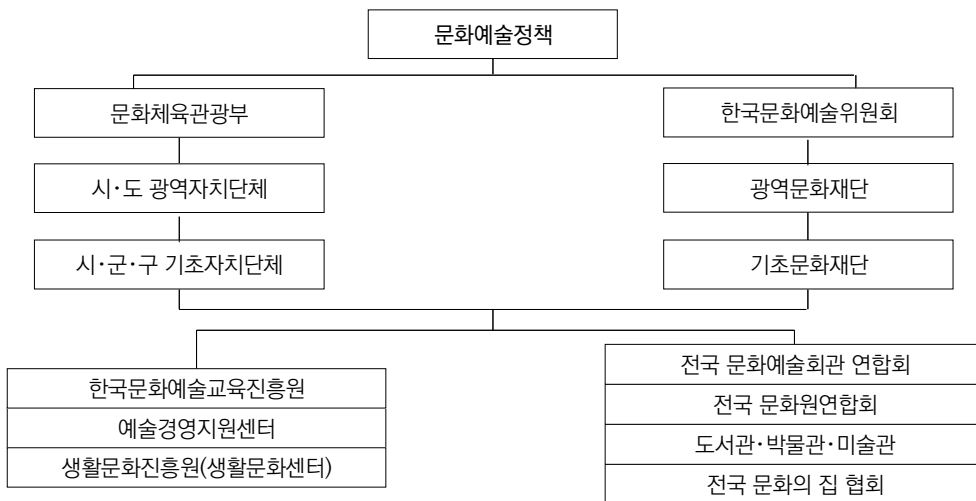
를 담당하면서 문화예술서비스<sup>2)</sup> 전달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리고 지역단위 문화예술지원 조직은 지역 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한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도에 제정되면서 체제를 갖추었다. 지역단 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기도 하고,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지역문화재단은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설립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며(정경미·이원근, 2019), 현재 전국에 123개소(광역 17, 기초 86)가 운영<sup>3)</sup>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단을 통해 문화예술지원정책과 서비스를 전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에 있다(김기봉, 2016).

이러한 문화예술지원 관련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기관별·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국가의 문화예술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으며, 정부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들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대체로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문화예술 분야 서비스 전달체계도



### 3) 대구문화재단의 예술지원 관련 사업 현황

지방자치체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문화행정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되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문화 수요에 따른 문화행정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예술행정

2)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가 국민의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문화예술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음(김세훈 외, 문화예술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2013)

3)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www.ancf.or.kr) 내부자료

의 추진을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지역문화재단은 관료체제에서 벗어나 정책적으로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했다. 재단의 문화예술지원 특성은 공공선을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 목적, 단순하고 유연한 구조와 빠르고 자유로운 지원 결정, 전문성, 공식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에서 그 설립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구문화재단은 2009년에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인력 육성을 통해 고품격의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위해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비영리 공익 재단 법인이다. 지역 문화예술행정 현장에서 팔길이 원칙을 구현한다는 취지도 담아 설립한 기관인 셈이다.

재단의 목적사업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창의성 제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자문 및 교육·연구,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 등이며, 이를 위해 문화재단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대구문화재단은 출범 이후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건강한 문화생태계 조성 과 지역 문화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해 노력과 함께 대구광역시로부터 예술발전소, 생활문화센터 등의 문화예술 관련 시설과 컬러풀 페스티벌 등 사업을 수탁하고 있다.

대구문화재단은 설립 이후,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중점추진하고 있다. 예술계의 경향과 현장성을 반영하여 지역 자립형 창작생태계 구축과 국제적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구형 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설립 초기(2009~2011년)에는 소액 다건 위주의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재단 운영의 안정기(2012~2016)에는 ‘단계별 육성지원체계’를 구축하면서 예술인(단체 포함)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후 2017년부터는 ‘예술인의 생애·활동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예술인(단체 포함)의 주기별 경력에 맞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지원사업은 2021년도에는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과 크게 기초예술진흥사업, 청년예술가 육성사업, 그리고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 주체별로 구분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문화예술진흥지원 사업 현황4)

신청 주체	단위 사업	지원 자격	지원 분야
예술 단체	신규단체 활동 지원	3년 미만 단체	전 분야
	창작활동 지원	3년 이상 단체	전 분야
	창작활성화 지원	5년 이상 단체	공연예술 분야
	명작산실 지원	5년 이상 단체	공연예술 분야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3년 이상 단체	공연예술 분야
개인 예술가	최초 예술활동 지원	만 35세 이하, 무경력	전 분야
	유망청년예술인육성 지원	만 35세 이하, 경력	전 분야
	경력예술인 활동 지원	만36세~만64세	전 분야
	원로예술인 활동 지원	만 65세 이상, 경력 30년 이상	전 분야
단체 및 개인예술가	학술조사활동 지원	자격 제한 없음	전 분야
	예술교류활동 지원	단체) 3년 이상, 개인) 제한 없음	전 분야
	창작연구년 지원	자격 제한 없음	전 분야

4) 2021년도 대구문화재단 업무계획(문화재단 내부자료)

2021년도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1억원 이내)과 명작(名作)산실 지원사업(1차 500, 2차 1억원 이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200만원에서 5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는 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재단은 매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역 문화예술인(단체 포함)들에게 지원사업의 종류와 시기, 신청 방법, 지원 규모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업지원방식은 주소지를 대구에 둔 전문예술인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전문예술단체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위원 공개 후보로 추천된 심사위원에 대한 추천 순위에 따라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사업이 확정된다. 지원 주체별 한 건의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최근 3년간 대구문화재단 생활문화 관련 지원사업 참여 및 수행경력이 있는 예술인(단체 포함)은 신청이 제한되고, 동일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다른 기관에서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전문가의 현장평가와 사업 담당자의 행정평가를 통해 환류되고 있다. 전문가 평가는 분야별로 이루어지며, 행정평가는 사업비 교부신청에서부터 집행, 정산까지의 절차 이행에 관한 평가로 이루어지며, 이들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심사에 환류(Feed Back) 점수로 반영되게 된다.

### 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사람의 복지나 행복의 정도를 말하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김현중, 2018). 삶의 질은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람마다 만족을 느끼는 정도와 상태, 환경에 차이가 있어 특정한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해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삶의 만족도 관련 개념은 Neugarten과 그의 동료들이 1961년에 노인의 삶의 만족도 지표(Life Satisfaction Index)를 개발하면서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했다(이성호·남정민, 2021에서 재인용). Neugarten(1968)은 개인이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지니고, 스스로 삶의 목표를 성취했다고 느끼면서, 낙천적인 감정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윤중, 2017에서 재인용). George(1979)는 자신이 바라는 것과 실제로 자신이 성취한 것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Diener외(1985)는 객관적이고 외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주관성에 의해 결정되는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백두산·박치성(2016)은 행복을 구성하는 인지적 요인에 속하는 삶의 만족도는 스스로가 설정한 만족 수준 도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한준(2013)은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잣대를 통해 삶을 영역별 혹은 전반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George(1979)는 삶에 대한 만족, 자아존중감, 건강 상태와 기능 및 사회·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 및 객관적 평가로, 한형수(2008)는 객관적 지표(소득, 주거환경,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여가 및 사회활동)와 주관적 지

표(성별, 직업, 나이, 교육 수준)로, 그리고 김윤중(2017)은 일자리 만족(일의 가치, 일, 주관된 일자리)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국내외 선행연구의 정의를 종합하면,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본인의 일상생활에 대해 주관적인 만족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긍정적이고 유쾌한 느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자신의 직무인 예술 창작활동과 창작욕구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로 정의하고, 예술인의 객관적 지표(소득, 주거환경,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등 예술활동의 여건)와 예술 활동 기여도와 창작 욕구 등을 구성요소로 한 주관적 만족감을 통해 측정하였다.

#### 4. 예술지원사업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예술이란 인간이 느끼는 아름다움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의미적 행위이다. 문화예술 활동은 인간을 보다 능동적이고 활력 있게 만들며(황연주, 2004), 과거의 예술은 미술, 음악, 공연, 전시 등의 영역에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오랜 활동을 한 전문가만이 창조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는 예술 작품의 질적 수준의 차이는 있겠으나 예술가나 일반인 모두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예술적 창작과정을 통해 현실적 한계를 넘어 자신을 이해하고 성취해 가는 과정은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재능이라 할 수 있으며(하미경·윤동열, 2013에서 재인용), 예술가들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예술적 기법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이러한 예술형식을 활용하여 미적 경험인 감수성을 함양하면서 만족도 높은 삶을 영위한다(김성숙, 2007; 황길남, 2006). Coffman & Adamek(1999)은 라이브밴드활동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여가활동이 육체적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수동적 참여 보다 능동적인 참여를 하는 개인의 안녕감 수준은 훨씬 크다고 주장하였다. McCarthy(2002)는 문화예술 활동이 건강증진, 자아 존중감 증가, 협력 및 의사소통 증진 등 사회 전반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하미경·윤동열, 2013에서 재인용).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문화예술인에게 예술 활동의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로 연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한 예술인들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박현승·김현철(2017)은 예술가의 가치와 만족이라는 연구에서 창작지원금 수혜로 문화예술지원정책 만족도가 높은 경우 예술활동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유수영·허식(2016)은 문화예술인의 예술 근로 만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창작지원금 수혜여부가 예술활동 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지원 금액의 규모와 횟수는 예술 활동 만족도의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달리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에서 예술인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민경선·이수현, 2015), 이슬기(2020)는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의 재정지원정책 수혜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 사이에 공연 횟수나 자체 기획 작품의 비중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이 예술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였다는 다른 연



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예술활동 특성이 예술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예술활동 특성의 구성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 박현승·김현철(2017)은 국악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예술정책과 예술지원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예술가의 사회적 특성(성별, 나이, 전업 작가 유무, 교육 수준, 예술 활동 경력)과 경제적 특성(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과 비예술 활동 수입, 거주지역, 창작지원금 수혜 여부, 교육훈련비 지출, 예술활동비 지출, 개인 창작공간 보유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황동열·류희진(2014)은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인 창작지원 복지사업의 만족도 및 예술활동 기여도에 관한 연구에서 취업상태(전업 작가, 정규직 여부 등)와 현 직업과 예술활동 분야와 일치 여부, 월평균 예술활동 소득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이들 선행연구에서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예술 활동 수입과 경력은 1~5% 미만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를 삶의 전반적인 상황과 삶의 경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과 평가라고 한 Campbell(1981)의 정의(김현종, 2018에서 재인용)와 삶의 만족도를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라고 한 선행연구(George, 1979)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예술 분야와 예술활동 기간, 전업 활동 여부와 전공 분야와 현재 활동 분야의 일치 여부, 소득 등을 예술활동 특성의 구성요소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고찰 결과를 토대로 예술지원사업이 문화예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예술지원사업과 삶의 만족도 간에 예술활동의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연구 문제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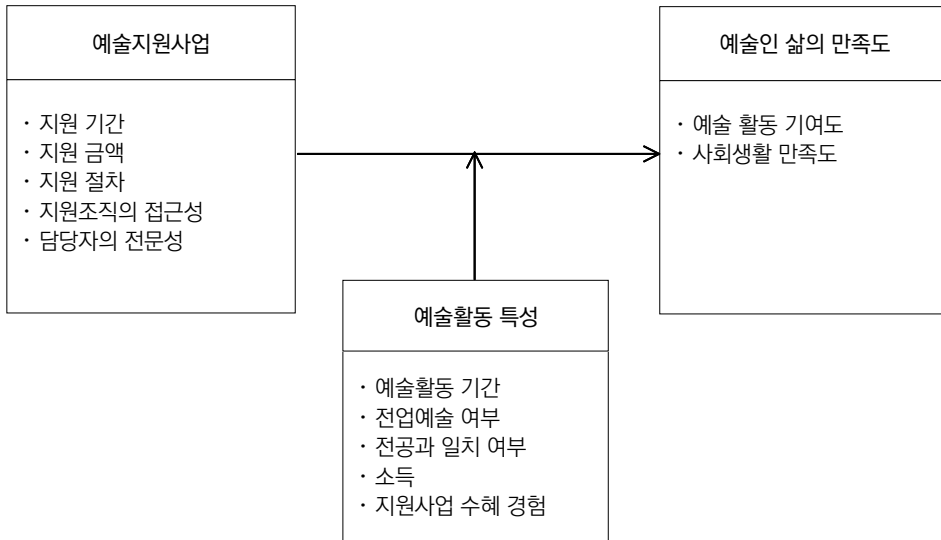
### Ⅲ. 연구의 설계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우선 예술지원사업 만족도가 예술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와 예술지원사업과 예술인 삶의 만족도 간에 예술 활동 특성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예술인들의 인식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지원사업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예술활동 특성을 통제변수로, 예술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2〉 연구의 모형



##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예술지원사업 만족도가 예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전달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은 예술지원정책의 대표사업인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가설 2〉는 예술지원사업과 예술인 삶의 만족도 간에 예술활동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가설1: 예술지원사업 만족도는 예술인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예술활동 특성은 예술지원사업과 예술인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설문문의 구성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검증을 위하여 설문 항목은 선행연구와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8)의 설문 등을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문항별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대구지역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한 후 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한 설문지를 회수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설문문의 구성

변수	측정항목	문항	선행연구/ 참고문헌
예술 지원사업 만족도	·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 지원절차의 편리성 · 지원조직 접근의 용이성 · 담당자의 이해도와 전문성	5	김현종(2014), 황동열·류희진(2014), 예술인 실태조사(2015, 2018), 대구 예술인 실태조사(2019), 한만주(2015), 강기호(2019)
삶의 만족도	· 현재의 예술활동 만족도 ·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 만족도 · 예술활동의 계속성 여부 · 소득 · 도시와 주변환경 · 가족 및 사람들과의 관계	6	예술인 실태조사(2015), 김현종(2014), 강기호(2019), 공영란(2020)
통제 변인	·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 예술활동 특성 (활동장르·기간, 겸업·전공일치 여부, 예술지원사업 수혜여부)	8	황동열·류희진(2014), 김현종(2014), 강기호(2019),
계		19	

## IV.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여성이 60.8%로 남성(39.2%)보다 응답률이 두 배 정도 높았다. 연령대는 20대가 43.4%, 30-40대가 37.0%, 50대 이상이 19.6%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예술인들의 학력은 대부분이 대학 이상(81.9%)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성	122	39.2
	여성	189	60.8
연령	20대	135	43.4
	30-40대	115	37.0
	50대 이상	61	19.6
학력	전문대 이하	48	18.1
	대학 이상	217	81.9
합계		311	100.0

## 2) 조사대상자의 예술활동 특성

조사대상자의 예술활동 특성은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예술분야는 시각예술 32.8%, 공연예술 56.6%, 문학과 기타 10.6%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분야 활동 기간은 대부분이 5년 이상(79.9%)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형태별로는 전업 예술가 48.3%, 겸업 예술가 34.8%, 현재 예술활동 의향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16.9%로 나타났으며, 지금 예술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작활동에 대한 회의적인 경우(22.7%)와 신체적인 이유(4.5%), 그리고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경우(36.4%)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예술 활동을 통한 연간 평균 수입은 600만 원 이하가 56.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60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17.3%),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12.6%), 2,0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6.1%),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5.1%), 5,000만 원 초과(2.9%) 순이었다.

대구광역시(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예술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예술가는 32.2%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예술활동 특성

	구분	빈도(N)	비율(%)
예술 분야	시각예술(미술, 영화, 사진, 건축)	102	32.8
	공연예술(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176	56.6
	문학, 기타	33	10.6
문화예술 분야 활동 기간	5년 미만	62	20.1
	5-15년 미만	142	46.0
	15년 이상	105	34.0
전업 예술 여부	전업 예술가	150	48.3
	겸업 예술가	108	34.8
	지금은 예술활동을 하지 못함	53	16.9
현재 예술 활동의 전공과 일치 여부	일치	203	65.3
	불일치	108	34.7
소득	600만 원 이하	174	56.0
	1000만 원 이하	54	17.3
	2000만 원 이하	39	12.6
	3000만 원 이하	19	6.1
	5000만 원 이하	16	5.1
	5000만 원 초과	9	2.9
예술지원사업 수혜 경험 여부	받은 적 있다	100	32.2
	받은 적 없다	211	67.8

## 2. 예술지원사업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예술지원사업 만족도가 예술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예술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는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부문별 항목은 지원 기간, 지원금, 지원절차의 간편성과 조직의 접근성, 담당자의 전문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 구성의 타당성을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예술지원사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Cronbach's Alpha 계수가 0.801로 나타나 설문 문항 구성의 타당함을 볼 수 있다.

**<표 5> 예술지원사업 만족도 측정 설문 문항의 신뢰성**

구분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s Alpha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에 만족한다.	.767	.801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에 만족한다.	.780	
지원사업은 창작활동의 동기부여가 되었다.	.776	
작품출품 등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775	
창작활동(작품구상) 시간이 증가하였다.	.792	
지원금 절차(신청·정산)는 까다롭지 않았다.	.793	
담당조직에 접근하기가 편리하게 되어있다.	.777	
담당자는 사업의 이해도와 전문성이 있다.	.767	

다음 <표 6>은 예술지원사업 만족도이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청 절차(평균 2.35)와 담당 조직의 접근성(평균 2.43), 지원금의 수준(2.46)은 더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계층별로 보면, 예술 분야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성별, 연령대, 학력, 문화예술분야 활동 기간, 연평균 수입, 전공 일치 여부, 전업 예술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술지원사업의 경험 여부에 따라서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더불어 각 부문별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원 경험층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예술진흥사업의 만족도**

구분		전반적 만족도	지원기간 만족도	지원금액 만족도	지원절차 만족도	지원조직 접근성	담당자 전문성
합계 (264)		2.65	2.54	2.46	2.35	2.43	2.64
예술 분야	시각예술 (82)	2.67	2.45	2.48	2.46	2.45	2.67
	공연예술 (157)	2.62	2.59	2.41	2.34	2.44	2.61
	문학/기타 (25)	2.72	2.56	2.68	2.08	2.28	2.76



다음 <표 8>은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어떤 부문이 영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회귀모형의 수정된 R Square 값이 51.9%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모델 적합성은 F=6.402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보면, 지원사업은 작품출품 등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t=3.799, p < .001$ ), 지원사업의 지원금의 절차(신청과 정산)는 까다롭지 않았다( $t=2.147, p < .05$ ), 지원사업 담당자는 사업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t=2.175, p < .05$ )가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력이 있는 부문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부문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지원사업은 작품출품 등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었다의  $\beta$ 값이 0.429로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지원사업 담당자는 사업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beta=0.291$ ), 지원사업의 지원금의 절차(신청과 정산)는 까다롭지 않았다( $\beta=0.235$ )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예술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부문별 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Model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616	.627		.983	.329
지원사업의 지원기간에 만족한다	-.055	.103	-.058	-.538	.592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만족한 수준이다	.029	.090	.032	.325	.746
창작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002	.115	-.002	-.017	.986
작품출품 등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383	.101	.429	3.799	.000
지원사업 기간 동안 창작활동 시간은 증가하였다	.013	.101	.015	.126	.900
지원금의 절차(신청과 정산)는 까다롭지 않았다	.191	.089	.235	2.147	.036
담당 조직구조에 접근하기가 편리하게 되어있다	.027	.110	.030	.249	.804
1 담당자는 사업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259	.119	.291	2.175	.033
예술분야(1=공연예술)	.104	.235	.063	.444	.659
성별(1=남성)	-.160	.148	-.098	-1.083	.283
연령대	-.126	.107	-.221	-1.184	.241
학력(1=대학 이상)	-.073	.195	-.033	-.375	.709
문화예술분야 활동 기간	.079	.064	.167	1.235	.221
전공 일치 여부(1=일치)	-.056	.199	-.028	-.280	.780
전업 여부(1=전업)	.038	.166	.022	.227	.821
연평균 수입	-.007	.056	-.012	-.129	.898

R=0.785, R<sup>2</sup>=0.615, 수정된 R<sup>2</sup>=0.519, df=16/64, F=6.402, p=.000

### 3. 예술인 삶의 만족도

예술지원사업과 예술인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예술인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소득, 도시, 사람 관계, 가족관계, 주변 환경 등 5개 부문과 현재 예술활동에 대한 만족도, 직업으로서의 예술, 향후 예술활동 의향 등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의 타당성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이 Cronbach's Alpha 계수가 0.855로 나타나 설문 항목 구성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삶의 만족도 설문 문항의 신뢰성

구분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s Alpha
예술가로서 현재의 예술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	.755	.803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생각한다	.811	
앞으로 예술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788	
현재 나의 소득에 대해 만족한다	.807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만족한다	.776	
예술활동 등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774	
가정생활 및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766	
거주하는 집과 주변환경에 대해 만족한다	.764	

먼저 예술인 삶의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3.36으로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람과의 관계(평균 3.38), 가족 관계(평균 3.57), 주변환경(평균 3.47)에 대해 다소 긍정적이었으며,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평균 3.09로 보통 수준, 소득은 평균 2.37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술 활동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술활동에 대해서는 평균 3.08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향후 예술활동 의향에 대해서는 평균 3.54로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10> 삶의 만족도

구분		전반적 만족	소득에 만족	도시에 만족	사람과 관계	가족 관계	주변 환경	현재의 예술활동	직업으로 예술활동	예술활동 계속성
합계 (302)		3.36	2.37	3.09	3.38	3.57	3.47	3.08	3.27	3.54
예술 분야	시각예술 (99)	3.47	2.55	3.13	3.44	3.53	3.53	3.40	3.52	3.99
	공연예술 (175)	3.27	2.20	3.06	3.35	3.59	3.43	2.89	3.23	3.23
	문학/기타 (28)	3.46	2.79	3.14	3.36	3.64	3.54	3.19	2.56	3.93
F		1.575	5.703**	0.233	0.346	0.189	0.362	6.121**	6.468**	13.540***
성별	남성 (120)	3.26	2.32	2.99	3.34	3.38	3.32	2.95	3.13	3.42
	여성 (182)	3.42	2.40	3.15	3.41	3.70	3.57	3.17	3.36	3.62
t		-1.462	-0.663	-1.431	-0.594	-2.619**	-2.186*	-1.599	-1.558	-1.318
연령	20-29세 (135)	3.42	2.44	3.19	3.43	3.70	3.56	3.27	3.69	3.67
	30-40대 (113)	3.28	2.24	3.02	3.37	3.45	3.37	2.88	2.89	3.35
	50대 이상 (54)	3.35	2.44	3.00	3.28	3.50	3.46	3.04	2.98	3.62
F		0.645	1.279	1.209	0.523	2.021	1.048	3.618*	14.905***	2.163
학력	전문대 이하 (48)	3.08	2.17	2.94	3.38	3.38	3.25	2.38	2.65	2.79
	대학 이상 (211)	3.50	2.40	3.17	3.46	3.69	3.62	3.27	3.45	3.80
t		-2.772**	-1.392	-1.532	-0.587	-1.910	-2.336*	-3.952***	-3.511**	-4.187***
활동	5년 미만 (61)	3.48	2.51	3.30	3.49	3.82	3.66	3.33	3.64	3.67



기간	5-15년 미만 (141)	3.28	2.38	3.13	3.38	3.51	3.40	2.91	3.08	3.37
	15년 이상 (99)	3.39	2.26	2.90	3.30	3.52	3.44	3.15	3.28	3.68
F		1.030	0.983	3.474*	0.781	2.171	1.397	2.973	4.246*	2.078
연평균 수입	600만원 이하 (151)	3.30	2.09	3.07	3.38	3.62	3.50	2.83	2.93	3.30
	2,000만원 이하 (83)	3.45	2.53	3.16	3.45	3.55	3.47	3.37	3.76	3.82
	2,000만원 초과 (39)	3.36	2.79	3.00	3.26	3.46	3.33	3.36	3.87	3.85
F		0.569	9.615***	0.391	0.543	0.402	0.440	7.307**	17.594***	5.870**
전공 일치	일치 (198)	3.41	2.43	3.08	3.32	3.62	3.55	3.30	3.57	3.77
	불일치 (104)	3.25	2.24	3.11	3.50	3.48	3.33	2.67	2.68	3.10
t		1.414	1.484	-0.213	-1.622	1.125	1.817	4.150***	5.840***	4.025***
전업 예술	전업 (143)	3.48	2.40	3.13	3.38	3.66	3.53	3.40	3.76	3.87
	겸업 (103)	3.17	2.20	3.03	3.31	3.36	3.33	2.66	2.86	3.17
	지금 하지 못함 (48)	3.40	2.65	3.13	3.60	3.77	3.58	3.09	2.78	3.33
F		3.407*	2.829	0.329	1.661	3.587*	1.592	12.446***	21.649***	10.451***
지원 사업	받은 적 없다 (204)	3.29	2.35	3.09	3.33	3.57	3.46	2.99	3.03	3.33
	받은 적 있다 (98)	3.50	2.40	3.08	3.49	3.57	3.50	3.29	3.76	3.98
t		-1.793	-0.338	0.097	-1.417	0.017	-0.359	-2.084*	-5.184***	-4.789***

\*  $p < .05$ , \*\*  $p < .01$ , \*\*\*  $p < .001$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부문별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예술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  $p < .05$ 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하는 집과 주변환경에 대해 만족한다(0.714)와 가정생활 및 가족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0.697), 현재 예술활동 만족도(0.640)는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11>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부문별 만족도 상관관계

구분		현재의 예술활동	직업으로 예술활동	예술활동 계속성	소득	도시	사람들과 관계	가족 관계	주변 환경
현재의 삶에 전반적 만족도	Pearson Correlation	.640	.252	.460	.352	.533	.533	.697	.714
	Sig. (2-tailed)	.000	.012	.000	.000	.000	.000	.000	.000
Covariance		.660	.258	.433	.397	.505	.474	.691	.737
N		98	98	98	98	98	98	98	98

다음 <표 12>는 예술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회귀모형의 수정된 R Square 값이 75.4%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모델 적합성은  $F=16.742$ 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보면, 현재 예술활동 만족도( $t=3.404$ ,  $p < .01$ ), 가정생활 및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t=3.228$ ,  $p < .01$ ), 거주하는 집과 주변환경에 대해 만족한다( $t=2.646$ ,  $p < .05$ )가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력이 있는 부문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부문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가정생활 및 가족관계

에 대해 만족한다  $\beta$ 값이 0.299로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다음으로 현재 예술활동 만족도( $\beta=0.267$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2〉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부문별 만족도의 회귀분석

Model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701	.461		-1.521	.133
예술가로서 현재의 예술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	.245	.072	.267	3.404	.001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생각한다	-.021	.066	-.022	-.315	.754
앞으로 예술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147	.079	.145	1.861	.067
현재 나의 소득에 대해 만족한다	-.016	.060	-.018	-.266	.791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만족한다	.109	.073	.108	1.499	.139
사회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081	.079	.076	1.021	.311
가정생활 및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283	.088	.299	3.228	.002
1 거주하는 집과 주변환경에 대해 만족한다	.230	.087	.252	2.646	.010
예술분야(1=공연예술)	-.172	.185	-.086	-.934	.354
성별(1=남성)	.126	.124	.064	1.021	.311
연령대	.017	.086	.025	.203	.840
학력(1=대학 이상)	.221	.163	.082	1.356	.180
문화예술분야 활동 기간	-.014	.056	-.025	-.260	.796
전공 일치 여부(1=일치)	-.092	.165	-.038	-.559	.578
전업 여부(1=전업)	.144	.140	.070	1.029	.307
연평균 수입	.154	.046	.212	3.335	.001

R=0.896, R<sup>2</sup>=0.802, 수정된 R<sup>2</sup>=0.754, df=16/66, F=16.742, p=.000

#### 4.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

예술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예술인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통하여 ‘예술지원사업은 예술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예술활동 특성이 예술지원사업의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13〉과 같이 삶에 대한 만족도와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주요 변인별 상관관계

구분		예술지원사업과 지원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현재의 나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예술지원사업과 지원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Pearson Correlation	1	
	N	95	
현재의 나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Pearson Correlation	.442***	1
	N	95	98

\*\*\*  $p < .001$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예술진흥 지원사업 전반적인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회귀모형의 수정된 R Square 값이 18.6%로 설명력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모델 적합성은  $F=22.527$ 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보면, 예술진흥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t=4.746$ ,  $p < .001$ )가 삶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 $\beta = 0.442$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예술지원사업은 문화예술인 삶의 만족도에 정(+)<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

〈표 14〉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예술지원사업 전반적인 만족도 회귀분석

Model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2.005	.327		6.137	.000
	예술지원사업과 지원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500	.105	.442	4.746	.000

R=0.442, R<sup>2</sup>=0.195, 수정된 R<sup>2</sup>=0.186, df=1/93, F=22.527, p=.000

그리고 예술활동 특성은 예술지원사업과 예술인 삶의 만족도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예술활동의 특성(통제변수; 성별, 연령, 학력, 예술활동 기간, 현재 예술활동과 전공과의 일치 여부, 전업 여부, 연평균 수입 등)을 통제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예술지원사업 전반적인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회귀모형의 수정된 R Square 값이 26.1%, 모델 적합성은  $F=4.139$ 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보면, 예술진흥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t=4.713$ ,  $p < .001$ )가 삶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예술활동 특성으로 연평균 수입( $t=2.296$ ,  $p < .05$ )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성립됨을 볼 수 있다.

〈표 15〉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예술지원사업의 전반적 만족도 회귀분석

Model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624	.737		.846	.401
예술지원사업과 지원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579	.123	.481	4.713	.000
예술분야(1=공연예술)	-.008	.304	-.004	-.025	.980
성별(1=남성)	-.057	.209	-.029	-.274	.785
연령대	.151	.143	.218	1.050	.297
1 학력(1=대학 이상)	.550	.276	.205	1.995	.050
문화예술분야 활동 기간	-.062	.092	-.109	-.669	.506
전공 일치 여부(1=일치)	-.172	.263	-.071	-.652	.516
전업 여부(1=전업)	.399	.231	.194	1.722	.089
연평균 수입	.171	.074	.238	2.296	.025

R=0.587, R<sup>2</sup>=0.344, 수정된 R<sup>2</sup>=0.261, df=9/71, F=4.139, p=.000

## V. 결론

### 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예술지원사업을 경험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지원사업의 만족도가 예술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예술활동의 특성이 예술지원사업과 삶의 만족도 간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절차와 예술지원사업 담당 조직의 접근성과 지원금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예술지원사업의 수혜 경험이 있는 예술인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32.2%)으로 나타났다. 전업 예술인이 겸업 예술인에 비해 예술지원사업이 예술활동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정수준 이상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창작활동 기여도와 창작활동에 투입된 시간의 증가, 향후의 예술활동 의향 등 예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술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부문별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창작활동 기여도와 지원사업 담당자의 사업이해도와 전문성에 있어 상관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에 어떤 부문이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예술지원사업의 창작활동 도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부문 중에 지원사업의 신청과 정산 절차, 지원사업 담당자의 사업이해도와 전문성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부문별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예술지원사업의 수혜 경험이 있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예술지원사업 만족도와 예술인 삶의 만족도는 정(+)의 관계가 있는 나타났으며, 예술활동 특성이 예술지원사업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소득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예술지원사업 만족도의 중요한 변인은 지원사업의 신청과 정산 절차, 사업 담당자의 사업이해도와 전문성으로 밝혀짐으로써, 지원사업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사업 신청과 절차적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술지원사업 만족도는 예술인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는 지원사업이 폭넓은 예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함은 물론, 예술인의 수요를 반영하는 다양한 지원정책 발굴과 활성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 창작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은 분명한 만큼,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예술인 복지사업과 더불어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는 곧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때 예술창작 활동 등으로 인한 예술인 삶의 만족은 시민 문화기본권의 확대, 문화국가로의 발전이 선순환되는 예술지원사업이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야 할 것이다.

## 2. 의의 및 한계점

본 연구는 그동안 학술적 연구가 다소 미비하였던 문화예술정책에 초점을 맞춰 예술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공적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예술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확인하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예술지원사업의 수혜 경험이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정책 현장을 짚어봄으로써 예술정책의 실제적 방향성 설정과 구체적 지원사업 마련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예술지원사업 만족도 및 예술인 삶의 만족도의 측정항목 구성에 있어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구조화된 문항을 설계하기 위해 관련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으나, 단편적인 질문으로 응답자의 구체적인 인식을 파악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이를테면 지원사업의 만족도가 낮은 원인과 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신청 절차의 어려움으로 신청하지 못하였는지, 아니면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원인 등에 대한 조사 등이다. 둘째, 응답자의 예술활동 분야의 전체적인 장르를 통합한 분석보다는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도 대표적인 비내구재(non-durable)의 특성을 지닌 공예예술분야의 무형적 속성을 가지는 공연예술과 소유물 중심의 다른 문화예술분야(미술, 공예, 문학 등) 등의 장르별 특성(Cheong et al., 2010)을 고려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마지막으로 설문 이외에 FGI 등을 통한 다양한 사례를 통한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였더라면 더 구체적인 정책제언이 가능해질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기호. (2019). 「연극예술인 복지사업의 활동 특성별 만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강석태·김선영. (2021). 광역예술지원센터 사업의 차별화 방안 고찰.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3), 323-345.
- 공영란. (2021). 「공연예술 종사자의 근로조건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이직 의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김건탁. (2009). 「재정분석을 통한 문화예술정책의 효율성 제고방안」.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김기봉. (2016). 「지역문화예술정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대학원.
- 김민주. (2015). 문화정책의 이론적 논거와 유형. 「사회과학연구」, 31(3), 133-157.
- 김성숙. (2007). 문화예술교육에서 미술교육의 역할: 생명력 회복을 위한 미술교육의 제안. 「조형교육」, 30, 1-20.
- 김여수. (1988). 문화정책의 이념과 방향. 「문화정책논총」, 1, 19-32.
- 김윤중. (2017). 「세대별 일자리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김정수. (2002). 문화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왕자' 패러다임에서 '야수' 패러다임으로. 「한국행정연구」, 11(1), 29-53.
- 김정수. (2008). 문화예술 공적 지원에 대한 검토와 재성찰,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논총」, 20, 163-191.
- 김정수. (2016). 준비예술가와 별거벗은 임금님: 우리나라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비판. 「문화정책논총」, 30(1), 4-31.
- 김정훈·홍성권·김용석. (2017). 「문화예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성을 위한 연구」. (사)입법정책연구회.
- 김진각. (2021). 문화예술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인문사회21」, 12(1), 3263-3276.
- 김태모. (2019). 「지역 예술지원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김현중. (2014). 「예술인복지사업 참여예술인의 만족도 및 창작활동 기여도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현중. (2018).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참여예술인의 직무만족감,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 민경선·이수현. (2015). 문화예술을 둘러싼 갈등 분석과 정책과정 개선 방안 모색. 「문화정책논총」, 29(2), 54-77.
- 박응격. (2000). 「문화예산 확충과 효과적인 활용방안, 문화재정과 문화정책 학술세미나」.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박현승·김현철. (2017). 예술가의 가치와 만족: 공연예술 종사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예술활동 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산업경제연구」, 30(2), 721-745.

- 백두산·박치성. (2016). 경제적 충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부행정」, 12, 23-57.
- 윤수영·허식. (2016). 문화예술인의 예술근로 만족에 관한 연구: 스로스비의 근로선호모형 적용. 「문화정책논총」, 30(2), 66-90.
- 이성호·남정민. (2021). 창업가역량이 창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6(5), 85-99
- 이슬기. (2020).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 분석: 전문 공연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4(3), 95-120.
- 임학순. (2003).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서울: 진한도서.
- 임훈. (2020).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조직문화유형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3), 145-162.
- 장우현·이지현. (2021). 코로나19가 예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301-313.
- 정경미·이원곤. (2019).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지역문화재단 효율적 운영 방안: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0(3), 322-332.
- 정경운. (2019). 예술지원정책이 지역 예술생태계에 미친 영향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호남학」, 66, 1-36.
- 조정래·박지윤. (2017). 정책수단과 정책만족도: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3(2), 283-319.
- 최윤우. (2020). 2020 예술지원정책,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연극평론」, 96, 35-40.
- 하미경·윤경열. (2013). 문화예술학습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20(5), 157-177.
- 한만주. (2015). 「법과 제도에 나타난 예술인 위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한준. (2013).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 격차. 「한국의 사회동향 2013, XI(사회통합)」 대전: 통계청. 301-307.
- 한형수. (2008). 노인의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9, 347-372.
- 황길남. (2006).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한국콘텐츠학지」, 4, 95-111
- 황동열·류희진. (2014). 예술인 창작지원 복지사업의 만족도 및 예술활동 기여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예논총」, 30(2), 205-223.
- 황연주. (2004).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분석과 전망. 「미술교육논총」, 18, 1-28.
- 대구광역시. (2019). 「2018 대구 예술인 실태조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 예술인 실태조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 예술인 실태조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Baumol, W. J. & Bowen, W. G. (1966).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New York: The Twentieth Century Fund.
- Campbell, A., Converse, P., & Rodgers. W.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6

- Coffman, D. D., & Adamek, M. (1999). Contributions of wind band participation to quality of life of senior adults, *Music Therapy Perspectives*, 17, 27-31.
- Diener, E., Emmons, R. S.,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George, L. K. (1979). The happiness syndrome: 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issues in the study of social-psychological well being in adulthood. *The Gerontologist*, 19(2), 210-216.
- McCarthy, K. F. (2002). *Building an Understanding of the Benefits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Unpublished Proposal submitted by the RAND Corporation to the Wallace-Reader's Digest Funds
- Neugarten, B. L.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134-143.
- Neugarten, B. L. (1968). *Middle age and aging* (Vol. 1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한만수(韓萬壽):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대구광역시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상북도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관심분야는 문화예술정책, 문화행정, 문화예술경영, 복지행정이다(hanms21@hanmail.net).

이윤석(李崙碩):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그리고 게이오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하고, 현재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게이오대학교 특별초빙부교수, 도호쿠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비교정책, 인적자원관리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Flexicure employment of older people in super-aged societies(SSCI, 단독저자)", "University Start-Ups\_ The Relationship between Faculty Start-Ups and Student Start-Ups(SSCI, 제1저자)", "Alcohol, deterrence, and crime: causality and policy lessons from Korea(SSCI, 교신저자)" 등이 있다(yoonslee@paran.com).



## Abstract

### The Effect of Support Projects for Art on the Satisfaction of Artist's Life: The Daegu Foundation for Culture's Support Project

Han, Mansu

Lee, Yoonseock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support projects for art on the satisfaction on the satisfaction of artists' lives for artists who experienced art support projects, established hypothe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support projects and life satisfaction, and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satisfaction with the art support project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artist life, and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art activities, the average annual income from art activiti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rough this study,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art support project is an important factor driving artists' art activities, and the factors that greatly affect the satisfaction of the art support project are the application and procedure of the support project, and the project profile and expertise of the person in charge. Second, it was considered that there is a need for a plan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project by reflecting the expansion of the project and the demand of artists so that it can benefit a wide range of artists of the art support project.

Key Words: Culture and Arts Policy, Support Project, Satisfaction with Art Support Project, Life Satisfaction